天武・持統期와 韓半島*

김선민**
kimmail@sookmyung.ac.kr

Contents

1. 머리말
2. 「新羅의 調」의 의미
① 한반도의 통일과 일본
② 「新羅의 調」의 의미
3. 耽羅使의 渡日
4. 맺음말

1. 머리말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부흥운동도 실패로 끝나게 되자, 일본 내부는 파병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앞으로 야기될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큰 내홍에 휩싸이게 된다. 결국 이 같은 혼란은 내전으로 발전하게 된다. 소위 672년의 임신의 난이 그것이다. 이후 일본은 천무가 즉위함으로서 정권은 안정을 회복하였지만 다양한 국내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645년 대화개신에서 천명한 중국의 체제를 계승한 일본적 중앙집권국가의 성립을 위해 매진해야 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수립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관계의 정립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내외적 난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일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일본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율령국가 성립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외적인 측면에서 그 성립과정을 고찰해왔다. 특히 7세기 후반 삼국통일 전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율령체제 성립을 둘러싼

* 본 연구는 2010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논점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그 전제로서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주체적인 것으로 파악한 후 일본과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를 검토해야 하지만, 일본학계에서는 자국 중심적인 세계관의 틀 속에서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이해하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1]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연구가 소위 율령적 대외관념에 입각한 이해에 너무 편중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의 존재를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편파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일본 율령제의 대외인식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韓半島諸國과 唐과의 구별이다. 즉 일본은 唐을 隣國으로, 韓半島諸國을 蕃國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 유력한 근거로서 「賦役令」, 外蕃還條의 「凡以公使, 外蕃還者, 免一年課役, 其唐國者, 免三年課役.」이라는 규정을 들고 있다. 일본은 唐에서 온 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과역을 면제해줌으로서 다른 外蕃者(1년 과역면제)와 차등을 두어 구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石母田正은 일본의 율령이 唐과 韓半島諸國을 구별하려 했던 것은 唐帝國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되는 「東夷의 小帝國」으로서 대립하려고 했기 때문이다[2]라고 규정했다. 즉 「諸蕃」과 「夷狄」 위에 군림하는 唐帝國에 대해서 스스로 「東夷의 小帝國」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기규정이 현실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적어도 신라를 포함한 주변제국이 이 같은 일본의 자기규정을 수용하여 예속적 관계를 인정했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같은 율령적 관념은 일본지배층의 자기규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현실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방향은 이와 같은 관념을 불변의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그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현재에도 일본 학계에서는 이러한 율령의 대외규정이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개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에는 견해를 달리한다 해도 야마토정권 성립 이후 일본은 万世一系의 천황가에 의해 지배되었고, 일본은 항상 한반도제국을 종속국으로 간주했다는 『日本書紀』적 역사인식에서

1) 대표적인 연구로는 石母田正『日本の古代国家』岩波書店, 1975., 西嶋定生『日本歴史の国際環境』, 東京大学出版会, 1983.
2) 石母田正「天皇と「諸蕃」」『古代国家論』제1부, 岩波書店, 1973. pp.329-354.,
3) 김선민 「신라의 통일정책」, 『통일논총』18호. 2000., p.18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불변의 전제 위해서 한반도 통일 후의 한일관계도 해석하고 있다. 특히 율령국가 성립과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인 天武 ・持統期의 경우도 이 같은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삼국통일 이후 일본과 한반도관계를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검토하므로써 일본의 율령국가 성립문제를 고찰하려고 한다. 그래서『日本書紀』天武・持統紀에 기술되어 있는 한반도 관계기사를 「新羅의 調」의 의미와 탐라와 일본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그 실체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삼국 통일 후 신라가 지향했던 천하관과 통일정책, 그리고 아직 명확하지 않은 고대 탐라의 실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新羅의 調」의 의미

① 한반도의 통일과 일본

645년 대화개신으로 인해 蘇我本宗家가 멸망하자 일본 내부에서는 대외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신정권이 친백제에서 친신라로 외교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었다는 견해[4]와 기존의 친백제정책에서 신라와의 관계개선도 도모하여 한반도 외교의 균형을 유지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5] 이와 같은 견해에 편승하면 唐의 친신라정책에 의해 일본과 신라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6] 그러나 신라와 백제의 우호관계는 백제의 멸망으로 일시적으로 단절되게 된다. 신라와 일본이 자리를 같이 하게

4) 대표적인 견해로는 石母田正『日本の古代国家』岩波書店, 1975.. 鈴木靖民「七世紀東アジアの戦乱と変革」『新版古代の日本朝2 アジアからみた日本』角川書店, 1992.

5) 山尾幸久『古代の日朝関係』塙書房, 1989. 395-401쪽. 鈴木英夫「七世紀中葉における新羅の対倭外交」『日本の倭国と朝鮮諸国』青木書店, 1995. pp.318-320.

6) 신라는 647년에는 金春秋, 649년에는 金多遂를 파견하여 일본의 외교적 협조를 구하는 한편, 649년에 와서는 唐의 연호를 채용하고 모든 관리의 복식을 唐風으로 고치는 등 唐과의 유착관계를 더욱 더 긴밀하게 한다. 일본도 高表仁의 도일이후 단절되었던 唐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高向玄理를 단장으로 해서 653년에 견당선을 신라를 경유하여 파견하므로써 唐과의 관계를 재개하기에 이른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되는 것은 665년 熊津城에서 행해진 웅진도독 夫餘隆과 신라의 문무왕이 하는 盟誓와 다음해 唐高宗이 주재하는 泰山의 封禪의 儀이다. 唐 高宗의 建封封禪에는 거란의 추장들과 사신들이 참석해 唐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관과 국제질서를 확인시켜주는 의례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7] 여기서 일본은 백제의 멸망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에 끼칠 영향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663년 백촌강 패전 후 일본은 唐과 신라가 일본을 정벌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對馬・壹岐・筑紫 등 한반도에 근접해 있는 변방에 防人을 두고, 봉수대를 설치하여 변방방위에 주력하는 한편, 만약 唐軍이 침공했을 때를 대비하여 정보전달시스템을 점검한다.[8] 이 같은 상황 속에서 天智3년(664)에 郭務悰이 2천의 진주군을 이끌고 일본에 온다. 郭務悰의 도일 목적은 일본에 대한 현상파악과 전승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일본에 전달하는 의도였다. 한편 天智7년(668)에 신라는 沙喙級湌 金東嚴 등을 일본에 파견한다.[9] 신라가 金東嚴을 파견한 것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한반도에서 당을 몰아내기 위해 먼저 배후를 안정시키는 의미에서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668년 9월에는 백제의 舊土에 대한 신라의 지배권 주장과 고구려 정토에 신라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唐이 질타해 양국의 관계는 험악한 상황이었다. 또한 신라는 唐이 표면적으로는 일본을 정벌한다 해도 실제로는 신라를 정벌하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시기에 12년 만에 신라에서 일본에 사신이 파견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의 唐의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이듬해인 669년 11년 만에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으로도 짐작된다. 신라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국제전략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10] 이에 대해서 같은 8월 中臣謙足이 김유신과 문무왕에게 선박을 선물한 것도[11] 일본도 唐의 위협

7) 김상범「唐전기 封禪의례의 전개와 그 意義」,『역사문화연구』17. 20002, p.50.

8) 이 같은 시설의 조영은 일본의 방어용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中村修也는 패전국이 전승국의 사절을 받아드린 후에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하고,이것은 당의 사절이 원활하게 일본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당의 지시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논리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를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없어 금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中村修也「白村江の戦 研究史」『한일관계사연구』36, 2010.참조.

9) 日本書紀』天智天皇七年秋九月壬午朔癸巳 新羅遣沙級級湌金東嚴等進調

10) 7세기 후반 양국의 국교가 재개된 金東嚴의 도일(668)로부터 持統9년(695)까지 신라로 부터의 견사가 23회, 보덕국의 送使까지 포함하면 30회에 이른다. 반면 견신라사는 확실한 예가 9회에 이른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속에서 신라와의 공조가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당시 권력의 중추에 있었던 中臣謙足은 669년 견당사를 파견하여 唐의 고구려평정을 축하하였다. 이와 같은 唐에 대한 친화외교는 효과를 발휘해 唐은 일본 정벌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唐의 위협이 사라지자 일본은 국내체제를 정비하는데 진력하게 된다.

다음해인 670년은 한반도 정세와 일본내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즉 한반도에서는 4월에 고구려 遺臣인 劍牟苓이 반란을 일으키고, 7월에는 신라가 고구려의 반란에 호응하여 옛 백제영토를 침공했다. 그리고 8월에 신라는 당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대항하여 報德國을 세웠는데 이것은 신라의 국가적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킨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라 중심의 수직적 국제질서가 성립될 수 있었고, 신라는 번국을 거느린 대국이라는 것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12]이것은 김춘추, 김유신과 같은 친당자주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일찍부터 唐의 부당한 간섭이나 복속시도를 늘 견제해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삼국통일 후에도 이러한 唐에의 태도에 대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 정세가 긴박함을 더해가고 있었다.

②「新羅의 調」의 의미

671년 天智천황이 사망한 후, 백촌강 패전에서 비롯된 내부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더욱이 直系繼嗣를 위해 卑母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지배층으로부터 그 즉위를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天智에 의해 옹립된 大友皇子는 당시 심각한 국제정세에 대처하기에는 입장이 어려웠다. 그 결과 임신의 난이 일어나고 천무가 즉위하게 되었다. 천무의 대외정책의 근간은 唐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신라 일변도의 외교방침으로의 전환이었다. 먼저 唐과의 관계를 단절한 원인은 내적으로는 임신의 난 이후 사신을 파견 할 여유를 가지 못한 것에서 찾고 있다,[13] 즉 견당사의 중단 원인을 임신의 난에 의한 황위 찬탈에서 구하고 있다.

---

11)『日本書紀』天智天皇七年九月丁未。中臣内臣使沙門法弁・秦筆賜新羅上臣大角干庾信船一隻。付東厳等。九月庚戌。使布勢臣耳麻呂賜新羅王輪御調船一隻付東厳等。

12) 노태돈「対渤海 日本国書에서 운위한 高麗旧記에 대하여」『邊太燮博士華甲記念史学論叢』삼영사, 1986, pp.617-62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견당사는 대중국관계상, 唐은 종주국으로서 주변제국의 정통성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왕조의 혁명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면 신라와의 외교에 집중한 것은 신라가 조공국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지만[14], 실제로는 신라와 함께 唐의 위협을 견제하고, 신라로부터 국가체제의 정비에 필요한 문화를 섭치하기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외정책은 持統朝까지 계승되었다. 신라도 한반도에서 당의 세력을 축출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친선적 관계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는 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양상은 서로가 원했던 현실적인 효과를 극대화로 나타났다. 즉 신라는 일본과의 선린적인 교류를 통하여 唐의 일방적인 한반도정책을 견제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새로운 국내체제의 완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신라를 통해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국이 서로의 국제적 위상을 의식한 팽팽한 긴장감이 내포되어 있었다. 다음의 史料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주목할 만한 기사이다.

사료- (1)『日本書紀』天武8年10月甲子條

新羅遣阿飡金項那・沙飡薩稟生朝貢也, 調物, 金・銀・鐵・鼎・綿・絹・布・皮・馬・拘・駱駝之類, 十余種, 亦別納物, 天皇・皇后・太子・貢金・銀・刀・旗之類, 各有數,

사료- (2)『日本書紀』持統2年2月庚寅朔辛卯條

大宰獻新羅調賦, 金銀絹布,皮銅鐵之類十餘物,幷別所獻佛像, 種種彩絹・鳥馬之類十 餘種, 及霜林所獻金銀彩色・種種珍異之物, 幷八十餘物.

먼저 사료-(1), (2)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라에서 보내는 물품의 수량이 많다는 것과 물산의 다양함과 別獻物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물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고급 비단과 금속기 및 병풍 깃발 등의 사치품과 불상 등의 불교관련물품

13) 青木和夫「律令国家の権力構造」『岩波講座日本歷史』古代三, 1976. pp.10-11.
14) 鈴木靖民『古代対外関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 1985. p.1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공작, 낙타, 향물 등 동아시아에서는 희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물산의 다양함은 신라의 調의 의미를 규정하는 척도가 되어왔다. 그리고 이 같은 척도에 의거해서 당시 양국의 외교관계를 규정해 왔다.[15] 먼저 사료- (2)에서 주목되는 물품은 旗이다. 旗는 군사적 성격과 의례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당 태종이 신라에 보낸 丹幟는 군대와 황제의 권력과 지배의 상징이었다. 신라는 당의 의식을 모방하여 신라의 권력과 문화의 표상으로 일본에 깃발을 전한 것이다. 당에서 증여받은 상징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밖에 금속성 기물과 고급 견직물도 일본에 보내주는데, 일본은 이를 다시 에미시, 숙신 탐라에 보내 당과 신라를 모방함으로써 당-신라-일본-에미시로 이어지는 기호의 이전과 공유체계를 형성한 것이다.[16] 신라도 국내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천하관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대외적으로 당의 책봉을 받고 있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번국시하고 문화적 후진국으로 치부하는 중층적 대외인식을 자각라고 있었다는[17]좋은 사례이다. 또한 시기에 일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라사는 表文을 휴대하지 않았으며, 신라는 唐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곧 신라의 대외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 신라에게 준 물품들은 綿, 絲, 絹, 등이고 그중에서도 綿이 대부분이었다. 綿은 신라 물품을 구입하는 결제수단이었다. 즉 교역과 시장원리에서 본다면 신라의 가공생산품과 일본의 원료가 교환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18] 이와 같은 교역 물품만을 비교해도양국의 문화, 기술의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특히 신라는 물품을 선정할 때도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물산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신라의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 그것은 신라가 일

15) 첫 번째, 676년 당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뒤에도 한반도 북부에는 발해라는 새로운 세력이 대두하게 되자 다시 신라는 이 같은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고 이해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물산의 풍부함과 다양함에 주목하여 이것이 외교적 목적에 의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교역의 측면이 강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산의 품목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하고 신라가 당에 보낸 물산과 비교 검토하므로써 신라가 물산외교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강조하는 심적 효과를 도모했다는 연구이다, 김선민「신라의 통일정책」,『통일논총』18호. 2000. p180.

16) 新川登亀男「日羅間の調(物産)の意味」『日本歴史』481, 1988.

17) 김창석,「통일신라의 천하관과 대일외교」『역사와 현실』56, 2010. p.160.

18) 연민수,『古代韓日交流史』, 혜안, 2003,.p.28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본에 보낸 물산들이 신라가 당에 보낸 물산과 성격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즉 신라에서 당에 보낸 물산을 검토해보면 - 金銀과 같은 자연물을 제외하면- 唐에 보낸 물산들은 신라에서 생산 내지 사육된 소위 「方産之物」이라는 것이다. 한편 신라가 일본에 보낸 물산들은 거의 신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唐으로부터 얻은 것이거나 교역을 통해서 얻은 것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신라가 물산 하나하나에 전략적 의미를 담아 일본에 보내고 있다고 한다[19]. 즉 신라는 일본에게 희귀한 물산을 대량으로 제공하므로써 唐과의 긴밀한 유착관계와 신라의 국력을 과시하여 일본을 놀라게 하고(驚歎), 그 뒤에 반드시 일본의 지배층이 느끼게 될 콤프렉스(羞恥), 결국 일본이 신라보다 열등하다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심적 작용을 치밀하게 읽고 보낸 것이 된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이 같은 심적 작용을 유도하므로써 자연스럽게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규정 지우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20]

3. 耽羅使의 渡日

이 시기 주목되는 것은 일본과 탐라와의 관계이다. 탐라는 일찍부터 중국 사서에 그 존재가 확인된다.[21] 『三國史記』에 의하면 476년 백제와 통교하여 백제 관위 恩率를 수여 받았다.[22] 양국의 교류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지만 탐라는 方物을 바치고 백제의 관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미루어 조공 관계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率'字가 붙는 관등이 백제의 部체제 성립 후 중앙귀족으로 전환된 세력에게 수여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23] 이 시기에는 백제는 탐라를 일개 지방 세력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같다. 이후 탐라는 삼국의 역학관계에 의해 다각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 탐라가 중국 내지 삼국과 어떤 형태로 교류하고 있었는

19) 新川登亀男『日本古代の対外交涉と仏教』, 吉川弘文館, 1999, p.16.
20) 김선민, 앞의 논문, p.183.
21)『三国志』에는'州胡',『三国志』에는 '島夷'라는 호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의 제주도는 涉羅, 耽羅, 耽牟羅 등으로 불리어졌다.
22).『三国史記』「百済本紀」, 文周王 2年4月条 耽羅国献方物 王喜拝使為恩率
23) 노중국『百済史研究』일조각, 1988, pp.101-1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지는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백제 東城王20년(498)에 탐라가 백제에 공물을 헌납하지 않아 백제가 정벌에 나섰을 때 탐라가 사죄하므로 武珍州에서 회군한 것으로 짐작해 보면 탐라는 백제의 완전한 속국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자립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탐라는 백제와의 관계로 인해 신라와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신라 성덕왕대에는 신라의 위협세력으로 간주되었던 9韓의 하나였다.[24]

탐라는 660년 백제가 멸망하자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외교적 교류가 활발해진다. 661년 탐라왕 儒李都羅는 당에 사신을 파견했고[25], 일본에도 王子 阿波技를 사신으로 보냈다.[26]한편 이듬해에는 좌평 徒冬音律를 신라에 파견한다.[27] 이것은 백제의 국가권력 공백기에 국제정세의 파악을 통해 정권의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한편으로는 백제를 대신해서 선진 문화, 문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우호적인 세력을 모색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각국이 백제 멸망 후 탐라의 지배자를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과 탐라왕이 佐平이라는 백제 최고 관위를 兼帶하고 있는 점이다. 전자는 탐라가 주변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치체제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28] 그것은 실재로 탐라가 내적으로 국가체제가 완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7세기 후반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각국의 외교적 배려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후자의 경우, 佐平이 백제 행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점을 감안해서 백제가 조공국인 탐라에 수여했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자칭, 자작의 虛飾이었다는 견해[29]도 일리가 있지만, 전자와

24) 「黄竜寺九層塔」 九韓侵労 若龍宮南黄竜寺九層塔 則隣国之災可鎮 第一層日本 第二層中華 第三層呉越 第四層托羅 第五層鷹遊 第六層靺鞨 第七層丹国・第八層女狄 第九 層濊貊

25) 『新唐書』「東夷伝 流鬼: 附 担羅」龍朔初 有担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訥 衣犬 豚皮 夏居草屋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鉄歯把土 初附百済 麟徳中酋長来朝 従帝之泰山 後附新羅

26) 『日本書紀』「斉明紀」 七年五月丁巳 耽羅始遣王子阿波枝等貢献<伊吉連博得 書云 辛酉年正月二十五日還到越州 四月一日 従越州上路 東帰 七日 行到樫岸山明 以八日鶏鳴之時 順西南風 方船大海 海中迷途 漂湯辛苦 九日八夜 僅到耽羅之鳴 便即招慰嶋人王子阿波枝等九人 同載客船 擬献帝朝 五月二十三日 奉進朝倉之朝耽羅入朝 始於此時>

27) 『三国史記』「新羅本紀」 文武王二年二月 耽羅国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 来降 耽羅自武徳以来 臣属百済 故以佐平為官号 至是 降為属国

28) 진영일 『고대중세 제주 역사 탐색 』 보고사, 2008, p.97.

29)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1995, pp.328-33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마찬가지로 백제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탐라의 도움을 받기위해서 배려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여 진다. 확실한 것은 이 때 탐라는 당과 독자의 조공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신라, 일본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다면적 외교 노력을 경주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탐라가 백제멸망 후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는 점이다. 661년 이후 탐라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일본에 688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표:『日本書紀』에 보이는 탐라 사신의 일본 파견

연도	파견인물	파견내용	비고
661	王子 阿波伎	공물	
665	使	내조	
666	王子 姑如	공물	
667	佐平椽磨	공물	옷감·쇠도끼·낫·칼 등 하사.
669	王子久麻伎	〃	탐라 왕에게 오곡 종자 하사.
674	王子久麻芸, 都羅, 宇麻	천황즉위 축하	탐라 왕, 사신 구마예 등에게 작위 태을상(太乙上) 수여와 의관 하사
676	王子久麻伎		
676	耽羅王 姑如		
677	耽羅 客		배 1척 하사,
678	王子都羅	조공	
688	佐平加羅	방물	가라 등에게 향연, 물품 하사.

백제멸망 후 왜 탐라는 일본과 교류를 시작한 것일까. 이 문제를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이 시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① 백촌강 전투(663) 이전까지
② 신라에의 복속(679) 이전까지
③ 신라에의 복속(679)이후

탐라가 일본과 처음 通交한 것은 백제멸망 다음해인 齊明7년(661)이다.『日本書紀』濟明7년5월丁巳條[30]에 의하면 탐라의 王子인 阿波伎가 공물을 바치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왔다고 되어 있다. 일본에 온 이유에 대해서는 分註의 「伊吉蓮博德書」에 의하면 제4차 견당사 일행이 越州를 출발하여 귀국하던 도중 탐라에 표착한 것을 탐라가 극진히 보살핀 다음, 阿波伎 등과 함께 일본에 歸還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 그들의 도일은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탐라의 조공국이었던 백제가 멸망하고, 이미 齊明가 백제 구원을 위해 築紫로 천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파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학계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중시하여 탐라가 백제구원의 교두보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31]있다. 그러나 백제의 복속국이었던 탐라가 661년 시점에서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일본과 행동을 함께하는 맹약 혹은 강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또한 탐라가 생존을 위하여 일본과 백제, 혹은 신라와 당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탐색하기 위해서 라는 견해도[32] 너무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661년이라는 시점에서 탐라는 백제의 존속여부가 자신의 존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舊唐書』에 의하면 僞王子夫餘忠勝・忠志와 함께 탐라국사도 항복하고 있고[33], 또한 당 고종이 주재하는 泰山의 封禪의 儀에도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과 공동대처를 논의하기위해 王子 阿波伎 등을 파견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662)2年2月條의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34]의 항복기사이다.[35] 이것은 결과적으로 탐라가 백제구원에 참여했고, 완

30) 耽羅始遣王子阿波枝等貢献<伊吉連博得 書云 辛酉年正月二十五日還到越州 四月一日 従越州上路 東帰 七日 行到樫岸山明 以八日鶏鳴之時 順西南風 方船大海 海中迷途 漂湯辛苦 九日八夜 僅到耽羅之鳴 便即招慰嶋人王子阿波枝等九人 同載客船 擬献帝朝 五月二十三日 奉進朝倉之朝耽羅入朝 始於此時>

31) 池内宏「百済滅亡後の動乱及び唐・羅・日 三国の関係」『満鮮史研究』上世제2책, 吉川弘文館, 1960,170-179쪽

32) 森公章「古代 耽羅の歷史成立と日本-七世紀後半中心」『조선학보』118집, 19895. p.126.

33) 『旧唐書』券184, 「劉仁戒伝」 偽王子夫余忠勝・忠志等 率土女及倭衆并耽羅国使 一時並降(中略) 麟徳二年 封泰山 仁軌嶺新羅及百済・耽羅・倭四国酋長赴会 高宗甚 有悦 濯拝大憲憲

34) 徒冬音律의 律은 津으로도 쓴다고 한다. 그래서 徒冬音律은 인명이 아니라 백제의 옛 지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徒冬音津은 『삼국사기』雜誌 陽武郡 항목에 의하면 冬音津이 경덕왕 때에 탐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의 康津이라는 견해가 있다. 고창석 『耽羅国時代史』서귀포연구원, 2007, p.2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전히 탐라가 신라에 복속했다는 「新羅本紀」 文武王(679)19年2月條의 내용처럼 文武王이 군대를 파견하여 탐라를 경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662년 단계에서 탐라의 신라복속은 군사적 과정이 동반된 정벌의 형태가 아니라 외교차원에서 성립되었고, 따라서 탐라의 항복이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 내지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탐라는 백제부흥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舊唐書』에 의하면 僞王子夫餘忠勝・忠志와 함께 탐라국사도 항복하고 있고,[36] 당 고종이 주재하는 泰山의 封禪의 儀에도 참석하고 있다. 아울러서 665년 웅진성에서 행해진 웅진도독 夫餘隆과 신라의 문무왕이 함께한 盟誓에도 참석했을 가능성이 크다.[37]이와 같이 탐라는 백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위의 표에 의하면 663년 백촌강 전투 이후 탐라는 8번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두 차례에 걸쳐 탐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38]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기에 양국의 교류가 빈번해지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탐라는 백제가 멸망하고, 그리고 신라에게 항복했을 때 가장 염려했던 것은 왕권의 안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탐라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먼저 당시 탐라사회는 전략적으로 자원을 통제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계층사회였고, 이를 토대로 초기적인 국가가 형성되어있었고, 탐라가 일본과 교류했던 것은 일본의 첨단문물 제도, 지식을 수집하여 내부의 문화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39] 반면에 탐라는 3세기 倭國王이 왜국영내의 30여국에 의해 共立되었던 상태와 유사하다고 이해하고, 탐라 사절의 빈번한 도일은 탐라 지배층의 권력 자체가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40]즉 백제의 질서에 의존하고 백제의 보호에 의해서만 결집할

35) 耽羅国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 来降 耽羅自武徳以来 臣属百済 故以佐平為官号 至是 降為属国
36) 『旧唐書』券184, 「劉仁戒伝」 偽王子夫余忠勝・ 忠志等 率土女及倭衆并.耽羅国使 一時並降(中略) 麟徳二年 封泰山 仁軌嶺新羅及百済・耽羅・倭四国酋長赴会 高宗甚 有悦 濯拝大憲憲
37) 鈴木靖民「百済救援の役後・の日唐交渉」『続日本古代史論集, 上巻』吉川弘文館, 1972.
38) 天武八年九月庚子 遣高麗使人遣耽羅使人等 返之 共拝朝廷, 「天武紀」(686)十四年八月癸巳 遣耽羅使人等還之
39) 진영일, 앞의 책, p.97.
40) 筧 敏生『古代王権と律令国家 』校,倉書房, 2002, p.10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수 있는 탐라 지배층이 백제가 멸망하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왕권의 안정을 기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탐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료-(1)「『日本書紀』天武2年秋八月丙申

(前略0詔耽羅使人曰 天皇新平天下 初之卽位 由是 唯除賀使以外不召 卽汝等親 所見 亦時寒浪嶮 久湎留之 還爲汝愁 故宜疾歸 乃在國王及使者久麻藝等賜爵位 其爵位大乙上 更以錦繡潤飾之 當其國之佐平之 則自築紫返之

임신의 난으로 즉위한 천무는 일본에 온 탐라사신 등을 축하사절 이외에는 송환한다는 명목으로 築紫에서 方環하고, 탐라왕자 久麻藝 등에게는 大乙上의 관위를 수여하고 있다. 먼저 축하사절 이외에는 송환한다는 명목으로 築紫에서 方環하고 入京시키지 않은 것은 당시 일본의 확고한 대외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되고[41]있다. 그리고 大乙上을 수여한 이유는「其國之佐平位」에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佐平은 백제 관위의 제1등에 해당하나 久麻藝 등이 받은 大乙上은 그에 비해 관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日本書紀』天智10年正月是歲條에 의하면 백제망명귀족에 대한 관위기사가 보인다. 여기서는 佐平이었던 余自信은 大錦下가 수여되었고, 達率이었던 者에게는 大山下, 小山上, 혹은 小山下가 수여된 경우가 있다. 이를 감안하면 탐라왕 등이 수여받은 관위는 達率보다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탐라지배층이 백제로부터 받은 관위는 다분히 의례적인 것으로 같은 佐平이라도 백제의 좌평과 탐라의 좌평은 동등한 레벨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42]가 있지만, 당시는 한반도에서 신라와 唐이 결전을 앞둔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일본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신라도 빈번하게 일본에 사신을 보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옛 백제의 조공국이면서 당시 신라에 복속되어 있었던 탐라에게 선의를 베풀 입장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백제의 멸망, 그리고 신

41) 筧 敏生, 위의 책, p.109.
42) 筧 敏生「百済王氏の成立と日本古代帝国」『日本史研究』317, 198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라에 복속이라는 급변한 상황 속에서 탐라왕권 내부의 혼란을 일본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축하사절 이외에는 송환한다는 명목으로 築紫애서 方環하고, 탐라왕자 久麻藝 등에 대해서 大乙上의 관위를 수여한 것은 단순하게 탐라와 백제를 차등해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탐라를 멀리하고, 그와 같은 일본의 절박한 입장을 낮은 관위의 수여로 표출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676년 王子 久麻伎에 이어 耽羅王 姑如가 차례로 도일하고 그들이 5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 체류하는 것도 탐라 내부의 혼란과 변화를 암시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아울러서 679, 684년 일본이 탐라에 사신을 파견한 것과 持統期에 있어서 佐平位의 자칭을 승인한 일본의 대응은 백제왕족의 內臣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한반도제국에 대한 우위를 점해 율령적 관념을 형성하려는 의도[43]에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內臣과 外臣, 化內와 化外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44]탐라 내부의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일본의 대응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맺음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한일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즉, 양국은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정세에서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신라는 고구려왕족인 安勝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했다. 한편 일본은 율령 속에 唐을 隣國으로, 조선제국을 蕃國으로 규정하고 唐帝國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되는 「東夷의 小帝國」으로서 군림하려고 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인식은 외교적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당시 신라의 지배층이 그리고 있었던 천하관 이라는 틀 속에 일본은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였고, 반대로 일본이 그리고 있었던 주변제국을 예속국으로 하는 관념에 신라는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였기 때문이다.

신라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7세기말에 일본에 대해 고도의 물

43) 森 公章, 앞의 논문, p.137.
44) 筧 敏生, 위의 책, p.11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산외교를 펼치고 있다. 즉 당에게는 시종일관 신라에서 생산된 물산을 보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당의 하사물 내지 당과의 교역국, 즉 페르시아, 인도와의 교역을 통해서 얻은 물산을 보내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물품은 旗의 존재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 태종이 신라에 보낸 丹幟는 군대와 황제의 권력과 지배의 상징이었다. 신라는 당의 의식을 모방하여 신라의 권력과 문화의 표상으로 일본에 깃발을 전한 것이다. 당에서 증여받은 상징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밖에 금속성 기물과 고급 견직물도 일본에 보내주는데, 일본은 이를 다시 에미시, 숙신 탐라에 보내 당과 신라를 모방함으로써 당-신라-일본-에미시로 이어지는 기호의 이전과 공유체계를 형성한 것이다.[45] 신라도 국내적으로는 자국중심의 천하관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대외적으로 당의 책봉을 받고 있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번국시하고 문화적 후진국으로 치부하는 중층적 대외인식을 자각라고 있었다. 또한 신라는 일본의 율령적 외교형식에 순응하면서 삼국통일 후 대일본외교에서도 자주적이고 대등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와 같은 선택은 한반도의 분단적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신라의 유연한 외교자세를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탐라와 일본의 관계도 백제의 멸망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탐라의 조공국이었던 백제가 멸망하고, 이미 齊明가 백제 구원을 위해 築紫로 천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파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후에도 탐라는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일본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일본의 탐라에 대한 인식은 당시의 급박한 국제정세속에서 백제의 조공국이면서 당시 신라에 복속되어 있었던 탐라에게 선의를 베풀 입장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탐라왕자 久麻藝 등에 대해서 大乙上의 관위를 수여한 것도 단순하게 탐라와 백제를 차등해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탐라를 멀리하고, 그와 같은 일본의 절박한 입장을 낮은 관위의 수여로 표출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45) 新川登亀男, 앞의 책, p.2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고창석『耽羅国時代史』서귀포연구원, 2007.
김창석「통일신라의 천하관과 대일외교」『역사와 현실』56, 2010.
노태돈「対渤海 日本国書에서 운위한 高麗旧記에 대하여」『邊太燮博士華甲記念史学論叢』 삼영사.
이기동「신라의 骨品制度와 倭国의 氏姓制度」『歴史学報』94・95. 1982.
이청규『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1995,
진영일『고대중세 제주 역사 탐색』 보고사, 2008,
石母田正「天皇と諸蕃」『古代国家論』, 岩波書店, 1973.
新川登亀男『日本古代の対外交渉と仏教』, 吉川弘文館, 1999.
鈴木靖民『古代対外関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西嶋定生『日本歴史の国際環境』東京大学出版会, 1985.
森公章『「白村江」以後 』講談社, 1998.
山尾幸久『古代の日朝関係』塙書房, 1989.
田中史生 『日本古代国家の民族支配と渡来人』 校倉書房.
筧 敏生「百済王氏の成立と日本古代帝国」『日本史研究』317, 1989.
森公章「古代 耽羅の歴史成立と日本-七世紀後半中心」『조선학보』118집, 1985.
鈴木靖民「百済救援の役後・の日唐交渉」『続日本古代史論集, 上巻』吉川弘文館, 1972.
池内宏「百済滅亡後の動乱及び唐・羅・日 三国の関係」『満鮮史研究』上世제2책, 吉川弘文館, 1960.
李成市正倉院宝物瞻粘布記を通じて見た8世紀の日羅関係」『朝鮮史研究会論文集』67, 1982.
石井正敏「8,9世紀의 日羅関係」『日本前近代の 国家と対外関係』, 吉川弘文館, 1997.
青木和夫「律令国家の権力構造」『岩波講座日本歴史』古代三, 1965.

❖ 투고일 : 2011.12.30
❖ 심사완료일 : 2012.02.02
❖ 게재확정일 : 2014.08.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天武・持統期와 韓半島

金善民

本稿は三国統一以降、日本と韓半島の関係を東アジアの国際情勢の変化の中で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古代日本における律令国家成立の問題を再考察するものである。そのために、『日本書紀』天武・持統紀に記されている韓半島関係記事の中で新羅の調の意味と靺羅と日本関係を中心に分析した。その結果、新羅の調の意味は物産の心理的効果を狙って行ったものである。すなわち、多くの貴重な物産を送ることによって自然的に新羅の国力を日本側に知らせたのである。一方、靺羅が多くの使者を日本に送ったことも百済の代わりに日本を朝貢国として求めたことではなく、新羅を牽制するための側面が強かったと思われる。結論的に言えば、律令的な対外規定は当時、東アジアの国際関係の中で現実的に通用していたものではなく、日本の支配層の自己規定に過ぎなかったことである。

Key Words：天武, 持統, 律令, 調. 靺羅(Tenmu-, Gito-, Rituryou, Mitugi, Tamra)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Tenmu, Jitou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Sun-min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oint of view of East Asia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en, the formation of the ancient Japanese state of Ritsuryou will be studied. To achieve this, the meaning of Shilla's Mitugi and Tamra-relevant articles in Nihonsyoki, Tenmu, and Jitou were studied.

Consequently, in order to hold a dominant position in a newly-reformed international situation, Shilla appointed Anseung, who was from the kingdom of Goguryeo, as the king of Goguryeo, that is, focused on an establishing a world view that regarded Japan as a tributary state.

Shilla engaged in produce diplomacy with Japan in the late seventh century to realize such an ideal. It gave Japan much admiration, but this soon changed to shame. Shilla's efforts to make Japan a tributary state were not realized due to the rise of Balhae and conflicts with Tang.

Besides, exchange between Japan and Tamra became a necessi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at is, Tamra failed to demonstrate a willingness to be under the control of Japan.

Key Words : Tenmu-, Gito-, Rituryou, Mitugi, Tamra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